

전주시, 도시교통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13억6000만원 투입 ‘지능형교통체계구축 4차 사업’ 완료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선정돼 지난해 부터 2년간 총 13억 6000만 원을 투입 해 추진한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4 차 사업이 완료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10개소) △교통안내전광판(1개소) △전광판 소통정보 표출개선 △교통신 호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도시교통 정보제공 시스템을 똑똑하게 개선하 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은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영상 인식 캐메 라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영상분석 을 토대로 실시간 통과 교통량과 차량 종류 점유율 속도 등의 정보를 수집해 교통 패턴을 분석한 후 신호 최적화 자료로 활용하고, 통과 교통량 정보를

누적 가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다. 또한 교통안내전광판의 경우 하이패 스 단말장치(DSRC) 통신을 통해 수집 된 소통정보와 ITS국가교통정보센터 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 한 소요 시간과 소통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교통량 분산을 통한 정체 해소를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통안내전광판을 활용하면 운전자 가 소통상태에 따른 도형의 색상 변화 를 인식한 후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우회할 수 있는 소통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온고을로에 설치된 교통안내 전광판의 경우 삼천 침수위험시 동영 상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재난에 따른 정보제공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지능형교통체

계(ITS) 구축사업을 통해 △AI기능을 활용한 자동차자율주행 △네비게이션 신호 개방(신호 잔여 시간 표시) 등 첨단신호 운영에 필요한 신호제어 프 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미래 수요에 대 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아울러 시는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 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신호 를 자동으로 연장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횡단보도 보행 시간 연장시 스템(5개소)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최근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시범 설치 운영을 마치고 추가 설치가 이루어지 는 교통약자 보호 첨단시설물이다. 시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충분하 게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보행 시간

연장시스템은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에 추가 설 치도록 하고, 소통정보 제공 시설이 부족한 동부대로 등에 대해서도 교통 흐름 카메라와 교통안내전광판이 설 치되도록 힘을 계획이다. 삼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스마트교차로의 실시간 통과 교통량과 차량종류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최 적의 신호운영으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층 교통정보 가 개선된 교통안내전광판을 활용하 여 정체구간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사고 예 방과 교통정체 해소에 많은 연구와 예 산을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들이 손수 제작해 전주승마장 우수고객에게 선물한 '행운의 편자'

버려지는 '편자' 재활용 감동 선사

전주시설공단, 전주승마장 우수고객에게 행운의 편자 선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버려지는 '편자'를 재활용해 고객 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공단은 전주승마장 우수고객에게 '행운의 편자'를 선물했다고 31일 밝혔다. 편자는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덧대어 붙이는 알파벳 'U'자 모양 의 쇠붙이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된 편자는 버려지는데, 이 버 려지는 편자를 재활용해 행운의 편자로 만든 것이다. 편자는 서양원에서 행운의 상징 으로 여겨진다. 행운의 편자는 고

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공단 직원들이 손수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운의 편자는 김현주 씨 등 초급반 과정을 마치고 중급반 과정을 시작하는 전주 승마장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김씨는 "공단에서 이렇게 승급을 축하하며 행운의 편자까지 선물로 줘 고맙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병우 체육공임운영부장은 "작 은 이벤트이지만 고객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별빛이 물든 도시, 무주·부안' 야간관광사업 육성 신호탄

전북자치도,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 지역 중심 체형관광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야간관광산업 육 성을 위한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다. 야간관광산업 육성 특례에 따라 전 북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번 심사에서 무주와 부안이 2025 야간 관광진흥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두 도 시는 향후 전북의 야간관광을 대표하 는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진흥 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시군별 제안된 콘텐츠를 평가했으며, △독창 성 △실행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평가 결과 무주와 부안이 독창적이고 실행력 있 는 콘텐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주는 'Twinkle Nature City'를 테마 로 자연친화형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 보였다. 반딧불이 체험, 산골영화제와 같은 기존 축제를 강화하고, 두문마을 낙화놀이와 상설화를 계획했다. 또한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 태권도원을 연계한 창의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제 안에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전통 낙화놀이를 중심으로 한 야간 체

험 콘텐츠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 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안은 '붉은 노을 푸른 잠, 新 감성 도시 부안'을 주제로 서해안의 아름다 운 풍경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해안 선을 활용한 독창적인 야간관광 아이 디어를 제시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자연의 색깔을 테마로 한 투어 프 로그램과 '빛, 바람, 노을'을 소재로 한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만의 감성을 극대화했다. 야경 투어, 예술적 조형 연출, 한여름 밤의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서해안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와 부안에는 각각 4,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설 프로그 램 개발, 상품화가 추진된다. 전북자치 도는 두 도시가 해당 자금을 활용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와 부안의 선정은 전주 야간관 광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이은 전북 야 간관광산업 육성의 신호탄이다. 단순



해지는 변산 마실길

한 야경 관광을 넘어 체험과 이야기가 있는 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는 야간관 광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 는 분야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선정절 계기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결합한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 이다. 앞으로 무주와 부안이 선보일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지역의 정체성을 어 떻게 담아낼지, 또 어떤 새로운 경험

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장은 "야간관광은 도시의 새로운 매력 을 발견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 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 북이 야간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이미지 연구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한) 국립식량과학원 이미지 농업연구관(사진)이 2024년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소재를 개발해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 을 알리고, 원료 국산화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과 농식품 산 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 았다. 이미지 연구관은 "공무원으로서 가 장 영예로운 상을 받아 영광이다."라 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 를 발견하는 연구에 매진해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수 상 소감을 전했다. 귀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미지 연구 관의 수상을 축하하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 한 우수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역할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식 및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재단 이경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글로스터호텔 노종호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및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관광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글로스터호텔,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날 31일 도청에서 글로스터호텔(회장 노종호)과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이경운 대표이사, 글로스터호텔 노종 호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및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지역 내 문 화·예술·관광 저변 확대를 위한 협 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호텔은 기부 금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글로스터호텔은 2025년에 1천만 원을 기부하고, 2028년부터는 수익금 의 10% 상당을 지역 문화·예술·관 광 활성화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문화와 관광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지역 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종호 회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

며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기여하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전 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관광 산업 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 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230-7410, 741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릴레이 공명선거 결의대회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 사장협의회 릴레이 공명선거 결의대 회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결의대회는 2024년 12월 전주시·완주군을 시작으로 남원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정 읍·김제시·고창·부안군, 군산·익 산시 순으로 약 3주간 진행됐다. '준법선거 실천', '부정선거 OUT'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공명선거 결의를 다졌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 거 분위기 조성 및 확산하여 새마을금 고 회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작성 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 회 주관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새 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및 전 북선거관 공동주관 선거교육을 실시 하여 후보자 자력 및 등록, 각종 신 고·신청에 관한 사항, 법정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제한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 안내했다. 최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새마을금 고의 발전과 공명선거 문화 정착의 시 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기술교육동에서 기업성장응답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알렸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 본격 운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은 탄소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 등의 다양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2024년 12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국내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및 경영 관련 각종 불 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나가고자 마련된 소통창구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기존에 기업 지원 소통창구로 운영해오던 기업컨 텍센터로 확대 개편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로의 운영을 본격화했으며, 법령 개정요구되거나 정부 정책과 연계 된 문제의 경우 관계부처 및 중소기업 업무조만 등과 협력해 문제해결에 앞 장서고자 한다. 이로써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탄소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규제 및 애 로 등에 대해 상시 신고 가능해졌으 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산업 전반 에 걸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 터는 기업의 원활한 신고접수가 가능 하도록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 등 다 양한 채널을 활용해 접수받는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경민 원장직 무대행은 "탄소기업이 직면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 리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